

2023년 파란사다리, 한지윤, 성장을 위한 발걸음

‘카톡’ 하고 올린 핸드폰을 봤을 때, 평소라면 지나쳤을 학교 공식 채널에서 보내온 메시지였다. 당시에 나는 파란사다리 사업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어학연수’라는 단어 하나에 바로 신청을 결심했다. 영어에 흥미가 많고 재미 있어하는 나였고 따라서 해외에서 직접 외국인들과 소통하고 생활하며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정말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신청을 준비하며 찾아본 파란사다리 사업은 취약 계층을 위한 해외 어학연수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평소 쉽게 해외여행에 대한 기회가 없는 나에게, 그리고 나와 같은 친구들에게 꿈같은 기회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

요즘 친구들이 가장 잘 찾는 매체인 유튜브에서도 파란사다리 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학교가 간 ‘베트남’, ‘필리핀’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등 다양한 나라에 대한 기회들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류 신청과 면접을 마치고 합격한 후에는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다. OT가 다가오기 전, 여권을 발급받으러 구청도 다녀오고 파란사다리를 다녀온 사람들의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영어 회화책을 종종 꺼내 들여다보기도 했다. 처음으로 나가는 해외에 내가 한 달 동안이나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다가오니 내 영어 실력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걱정은 OT를 들으면서 짹- 사라졌다. 걱정했던 내가 무색하리만큼 프로그램은 사전교육부터 사후교육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있었고 나는 그냥 체계에 맞춰 잘 따라가기만 해도 하나씩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우선 OT는 이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단지 해외 어학연수라고 해서 ‘언어 학습’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창업’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제공되었다. 다양한 강의를 단기 어학연수에서 내가 해내야 할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기도 했지만, 대학생 한지윤으로서, 강의를 들으며 사고와 시야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는 ‘창업’에 대한 강의였고 이것은 어학연수 기간동안 특별로 해야 하는 프로젝트와도 관련된 강의였다.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강사님의 말씀은 “그냥 단지 ‘해외 어학연수 단기로 한 달 갔다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학연수를 한 달 갔다 오면서 그 이상의 것을 얻어올 줄 알아야 합니다. (중략) 매일 일기를 쓰세요. 매일 일기를 쓰면요, 오늘 나에게 어떤 사고 또는 사건(문제)이 있었는지 보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 나갔는지 돌아보세요.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창업의 시작입니다.” 이다.

결국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키포인트라는 단순한 강의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1인 브랜드’ 즉,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되는 지금 시대에 정말 중요한 강의였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창업 아이템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일기를 통해, ‘나의 하루에 벌어진 사고나 문제가 나의 어떠한 약점으로 인해 벌어졌던 것인지’ 또는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외부의 상황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어떤 나의 강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또는 ‘어떠한 약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과 앞으로 내가 갖춰야 할 면모는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파란사다리 해외 어학연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가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에 주변 사람을 보고 ‘벤치마킹할 점’을 찾을 때, 새로운 나라의 사람들과 새롭게 만난 친구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시야’였다.

내가 내 안에만 갇혀있으면 나를 보완할 수 없고, 늘 똑같은 환경의 일상에선 늘 같은 사람들만 마주쳐 내가 얻을 수 있는 시야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주어지는 한 달은, 새로운 사람을 적당히 알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되었고 나의 시야를 넓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OT를 마친 후에는 모의 토익 시험을 통해 나눈 수준별로 사전교육이 시작되었다. 영어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참가 학생들과 같이 필요한 회화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니까 동기부여도 되고 참여도가 높아서 수월하게 회화를 공부할 수 있었다. 회화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혼자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전교육을 통해 본 프로그램을 들어가기 이전에 충분한 대화를 해봄

으로써 위밍업이 된 것 같았고, 그래서 이후 본 프로그램을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사전교육을 마치고, 본 프로그램 ‘한 달 단기 해외 어학연수’가 시작되었다. 스케줄은 학생들이 가는 나라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 각자 성향에 맞춰 자유로운 분위기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분위기를 정할 수 있었다. 나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필리핀 세부로 지망하였다. 대학생이 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침부터 오후까지 짙 들어찬 시간표를 보며 처음엔 약간의 후회와 막막함을 느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습관을 하나 들이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수업에 임했다.

내가 간 필리핀의 어학연수 기관은 일대일 수업부터 그룹 수업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다양한 주제로 말해볼 수 있었으며, ‘리스닝’, ‘스피킹’, ‘문법’ 그리고 ‘쓰기’ 까지 체계적인 수업으로 다방면으로 나의 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었다.

사실 가장 좋았던 수업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수업이 유익하고 즐거웠는데, 기억에 남는 수업은 그룹 토론 수업이었다. 현지 어학원에 수강하고 있는 대만인, 일본인 등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영어로 소통하며 꽤 어려운 주제로 토론을 하는 수업이었다. 처음에는 일본인, 대만인의 발음을 못 알아들어 소통이 어렵기도 했고 주제가 어려워 버벅이기도 했지만, 가장 많은 문화 교류가 일어나고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후 현지에서 친해진 일본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서로 언어를 교환할 수도 있었고 영어로 대화해야 가장 의사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높이는 것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

다음 파란사다리 사업에 참여할 후배 참가자들에게 같이 간 한국인 친구들보다도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 많은 교류를 하라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 수업 시간에도 많은 주제로 대화를 하며 영어 실력을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되지만, 나의 경험상, 외국인 친구와 사적으로 대화를 하면 더 일상적인 대화로 들어가면서 훨씬 나의 영어 실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또한 새로운 문화를 교류할 수 있어서 시야와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도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 파란사다리 프로그램이 아주 체계적이라고 느꼈던 부분 중 하나는, 사전교육 때 제공받은 창업 강의와 연관하여 스케줄 내에 우리 팀끼리 현지 선생님과 영어로 토론하며 창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사업 계획서도 영어로 써볼 수 있는 수업이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도 한국어로 얘기하기에도 복잡한 내용들을 영어로 표현하려고 하니 새로운 단어나 표현들을 학습하는데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어 온 한국의 생활과 당시 겪는 필리핀의 생활을 연관하여 창업을 구상하다 보니 필리핀에서의 모든 시간들에서 그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새로운 시각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후, 사후교육을 통해 우리가 구상한 창업 아이템을 영어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사후교육에서 영어로 발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한국어로도 떨리는 발표를 영어로 어떻게 하나, 막막한 기분이 들었었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 한 달 동안 너무 즐겁게 영어로 소통하면서 지내다가 와서 그런지 영어를 말하는데 부담이나 소극적인 태도가 사라졌고 대신 자신감이 많이 올라가서 발표도 무리 없이 마칠 수 있었다.

사실 그냥 해외에 나가서 대화하는 것이었다면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학원에서 언어를 배우러 왔다는 것을 아는 선생님들이 내가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 격려해주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자신감도 오르고 실력도 오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나에게서는 무척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나는 한 달 어학연수를 지원하면서 ‘토익 800점 대’를 목표로 삼았었다. 그래서 사후교육 이후에도 영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나갔고, 토익 시험에서 ‘830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또한 영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로, 지금은 ‘파머스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내가 무슨 영어를 가르쳐’, ‘영어는 어려워, 자신 없어’라고 생각했을 내가 눈에 선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학 실력 뿐만 아니라 너무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나의 일상이 가치롭게 바뀌어가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소중하다.

지금 고등학생인 나의 동생이 대학에 가게 되면, 동생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꼭 추천해주고 싶다. 나의 예전 모습처럼 영어에 별로 자신이 없는 동생인데, 아마 이 프로그램을 만나게 된다면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영어에 거부감이 줄어들 것 같기 때문이다. 동생 뿐만 아니라 영어가 어렵고 무서운 친구들도 이 프로그

램에 참여해봄으로써 영어가 절대 어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어학 실력을 넘어 새로운, 넓은 시야와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값진 소중한 경험을 많은 친구들이 경험해 보길 바란다.



그림 1 . 일본인 친구들과 필리핀 현지의 한국 식당에서 식사



그림 2 . 창업 관련 그룹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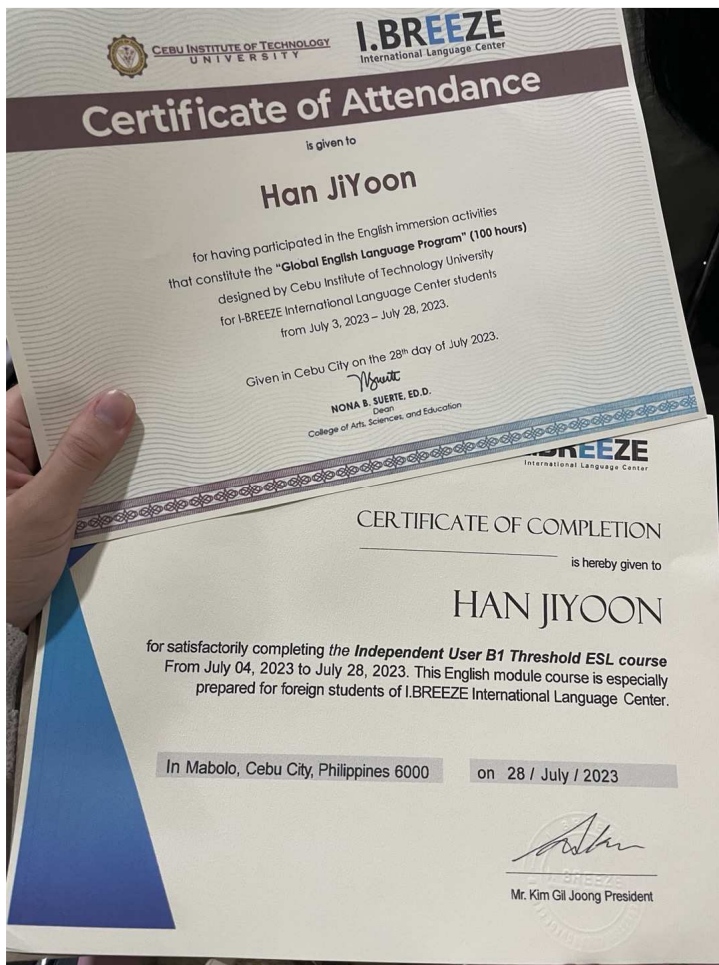


그림 3 . 어학연수 수료증